극광전기(주)

21세기 콘덴서제조업의 선두주자

극광전기(주)는 지난 68년 창업이후 77년 법인설립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필름캐패시터를 비롯한 금속증착필름을 전문제조하는 우수중소기업으로 성능 및 품질에 관련된 안전규격 및 시스템을 모두 획득하였으며 95년 11월에는 수출 1,000만불 탑을 수상한 21세기 콘덴서 제조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종업원은 약 270명으로 본회에는 1982년에 가입하였다.

- 대표자 : 장기수
-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74-2
- 공장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245-5
- TEL : (032)675-3100, (0418)41-8100
  FAX : (032)675-5763, (0418)41-4797
- 생산품목 : 콘덴서, 콘덴서용 증착필름, 자급재 공중전화기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전력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던 시기인 1968년에 창업자 고 장천석 사장은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창업 이념을 가지고 극광 전기 제작소를 설립하여 국내 최초의 콘덴서 제조업을 하게 된 이후 75년에는 Paper 증착기를 도입해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와 함께 콘덴서 소재의 자체 조달을 최초로 진행함으로써 제품 원가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효과와 한층 높은 수익을 획득하게 되어 성장의 기반을 만들게 되었다.

1977년에는 극광전기(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고 79년에는 저압진상용 콘덴서, 89년에는 Metallized Film을, 92년에는 HDTV용 고압 필름 콘덴서를 각각 개발 사업화하여 콘덴서 단일 업종으로 소재부터 제품까지 생산하는 체제를 확립하였고 특히 HDTV용 고압 필름 콘덴서는 "NT" Mark를 획득하여 극광전기(주)기술력을 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품질만이 이 업계에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은 극광전기(주)는 품질 최우선 정책을 고수하여 UL, CSA, TUV 및 ISO 9002, 100PPM 등 성능 및 품질에 관련된 안전 규격 및 System을 모두 획득하여 당사 제품을 고객이 안심하고 믿으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의 규모도 점차 커져 95년에는 아산 제2공장을 준공하여 증착필름 및 HDTV용 고압 필름 콘덴서를 이전하고 그해 11월에는 수출 1,000만불 탑을 수상하여 내수 시장뿐만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극광전기(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점점 증가하는 국내 콘덴서 시장의 경쟁을 지양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6년 중국 소주에 극광 전기 소주 유한공사를 설립한 극광전기(주)는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중국 공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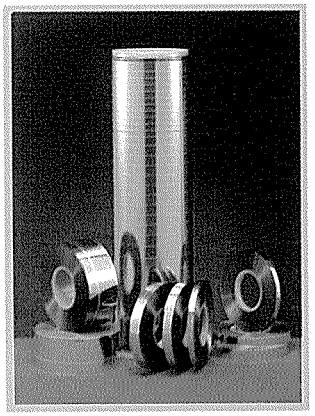
97년 코스탁 시장에 상장할 때는 무려 120:1의 경쟁율로 주식 청약이 쇄도해 견실한 중소기업으로의 극광전기(주)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가 얼마 만큼 반영되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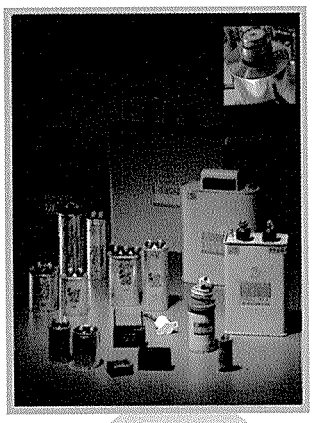
현재 극광전기(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창업 2세인 장기수 대표이사는 81년 극광전기(주)에 입사하여 회사 업무에 적응력을 키운후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경영 과학 석사 과정을 이수한 뒤 88년 3월 전무이사로 복직하여 93년 12월에 경영을 맡아 2000년대 세계적인 콘덴서 업체로 가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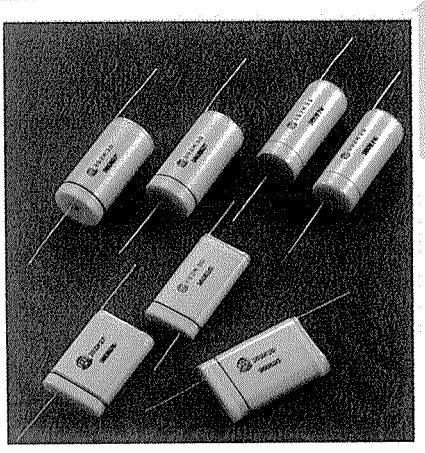
장 기수 대표이사는 창업주의 경영 이념인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항상 근로자를 생각하고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가전 산업이 성장보다는 대체 수요 충족에 치중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의 AC콘덴서도 국내 시장에서는 성장보다는 내실을 충실히 하는 경영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에어콘 수요는 최근 2~3







년내에 폭발적인 수요가 창출되고 당분간 이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 되었지만 국내 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내수 경기가 다소 침체된 상태이긴 하지만 부천 공장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AC 콘덴서는 98년 17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현 국내 시장 점유율 25%에서 30%로 확대 될 전망이다.

그리고 AC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현지 공장도 98년부터 본격 가동되어 10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인 등용, 기기용과 같은 일반품은 점차적으로 중국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HDTV용 고압 플라스틱 콘덴서는 97년 6월에 1,000천개/월로 증설하여 98년에는 97년 매출 대비 90%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증착 필름은 T-마진, 고저항 증착 필름 등 고 부가가치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이익률이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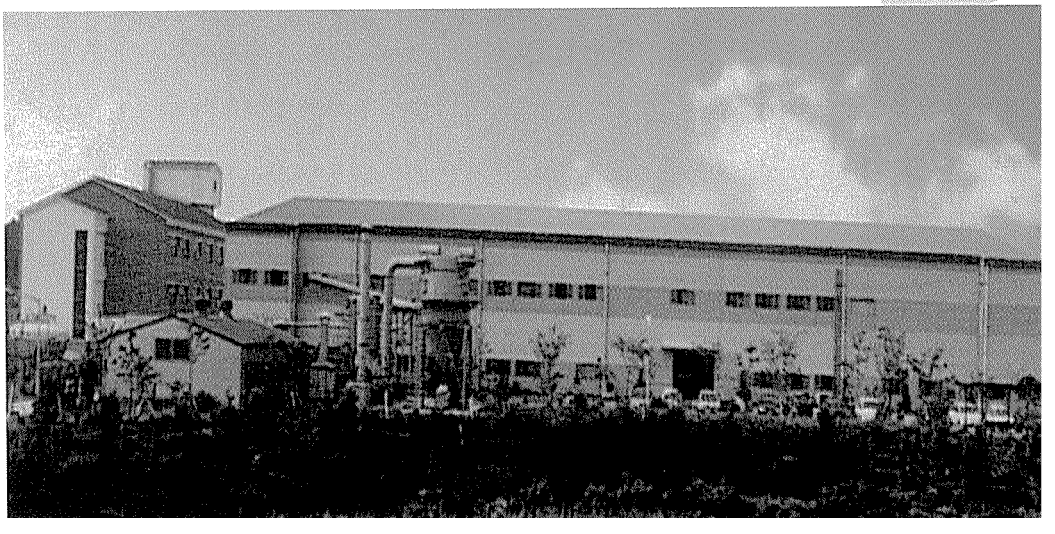
당사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장비 및 자급제 전화기 사업에는 지속적인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사업의 다각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고 특히 98년부터는 인터넷 관련 통신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당사는 지난 30년간 필름 콘덴서 전문 업체로 성장해 왔으며 필름 콘덴서의 기술 핵심은 원자재(증착 필름)에 의해 크게 좌우 되는 것을 감지하여 일찍이 증착사업도 병행해 왔다.

따라서 국내 필름 콘덴서 업체중 최고의 기술력을 견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을 인정하여 당사의 콘덴서 매출의 30%를 수출하고 있다.

필름 콘덴서의 기술 수준에 대한 척도를 흔히 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는 Set업체의 계속적인 소형화 및 단가 인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의 제품은 타사의 제품에 비해 약 7%의 Size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UL, CSA 등을 비롯한 해외 각국의 안전규격은 물론 KS, 품, 100PPM 등의 국내 품질인증, ISO 9002와 같은 품질 System에 대한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여 당사 제품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필름 콘덴서는 Wet Type에서 Semi-Dry 또는 Dry-Type으로의 기술 이동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조 기술의 정립이 주요 과제로 되고 있다.

당사 기술 개발팀은 수년 전부터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하여 현재 진상용을 제외한 전품목에 대하여 Semi-Dry화 되어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 받고 있다.